‘푸른연극마을’ 금남로 시대 엽니다

전용극장 ‘씨어터 연바람’ 이전
80석 규모…다섯번째 터전
‘고백-나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24~28일 첫 무대에 올려

새롭게 문을 연 씨어터 연바람에서 연습 중인 푸른극단 단원들.

지하 공연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에 커다란 유화 그림 하나가 시선을 사로 잡는다. 그림 속에는 아코디언과 바이올린을 든 거리의 악사들과 그 뒤로 ‘씨어터 연바람’이라는 간판이 내걸린 아담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많은 그림은 파란색으로 도색된 건물 내부와도 잘 어울린다.

그림 왼쪽 아래엔 ‘인생은 연극이야’라는 글귀가 쓰여있다. 푸른 연극마을의 대표 이당금씨는 지역 유명 화가인 한희원 작가가 공연장 이전을 기념해 그려준 그림이라고 했다. 한 작가의 작품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포토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연극계의 터줏대감 푸른연극마을이 전용극장 ‘씨어터 연바람’(광주시 동구 구성로 204번길 1-1 지하 1층)을 이전했다. 동명동 아트팰리스 지하 1층에 극장을 오픈한 지 5년만이다. 1996년 공연장을 처음 운영한 후 이번이 다섯 번째 이사다. 공연장 이전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임대료가 많이 오르면서 불가피했다.

이번에 이주한 곳은 광주우체국 뒷편, 금남로 5가역 인근 지하다. 65평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다. 그다지 넓지 않지만 분장실, 백스테이지, 객석 등 갖출 건 다 갖췄다.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기기엔 부담이 되고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단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부쳤다. 2달에 걸쳐 수년간 비어있던 유흥주점을 극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동명동보다는 유동인구가 적지만, 오히려 접근성은 뛰어난 편이죠. 주변에 노래홀이나 콜레탁이 많은데 저희 극단이 들어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곳 또한 ‘예술의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우스개소리를 하더라구요.”

이 대표는 금남로 시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곳에서 올리는 첫 작품은 창작극 ‘고백_나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남편인 오성완이 작품을 쓰고, 이 대표가 연출을 맡았는데 벌써 4번째 시즌을 맞았다. 주연은 부산극단 시나위의 대표이자 40년 차 배우 박상규가 맡는다. 계엄군의 딸 역할에는 오새희가 출연하며, 극을 쓴 오성완이 만호반점 주인을 연기한다.

지하 공연장 계단 벽면에 전시된 한희원 작가의 유화 그림.

“작품에 조금 변화를 줬어요. 전 시즌에선 계엄군이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번엔 계엄군의 딸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연극배우인 계엄군의 딸이 5·18을 주제로 연극을 만들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아빠가 계엄군이었다는 것을요.”

푸른극단은 앞서 지난 12~14일 서울 대학로 무대에 이 작품을 올린 바 있다. 첫 서울 순회 공연이었다. 이 대표는 “5월에는 광주 예술단체들이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5·18 공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광주 예술단체가 타지로 나가 그곳 지역민들에게 5·18을 상기시키고, 또 그들이 바라보는 5·18은 어떨까 라는 것을 우리도 느끼면서 배울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올해는 5·18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 무대에까지 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공연 당시 주먹밥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5·18을 상징하는 주먹밥을 통해 광주의 ‘정’을 나누고 싶었단다. 또한 5·18을 상징하는 인형들을 로비에 전시해 눈길을 끈 점도 기억에 남는다.

이 대표는 광주 공연에서 관람객들이 생각할 거리를 찾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022년을 살아가는 계엄군과 그의 딸이라는 인물 설정이 자못 흥미로운 이유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청년들이 만약 5·18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라는 게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2022년 오늘의 우리는 당시 청춘들이 꾸었던 꿈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 공연은 오는 24~27일(오후 7시 30분), 28일(오후 3시·7시) 펼쳐진다. 문의 062-226-2446.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공모

1차 공모 23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를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대관료 지원을 통해 창작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기간(2021년 12월1일~2022년 3월 31일)까지 진행 및 종료된 공연과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으로 한정한다. 기초공연 예술 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예술단체 및 개인 활동소재지가 광주시에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올해 공모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모는 오는 23일까지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지원서식을 참고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로 지원하면 된다. 2차 공모는 7월, 3차 공모는 11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행정심사에서 적격성 평가를,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6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주·인권·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전

ACC, 18일~다음달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이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삽화(일러스트)와 그림일기 공모전을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미래에서 온 소식, 민주·인권·평화’이며 삽화(일러스트)와 그림일기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삽화(일러스트)는 중학생 이상, 그림일기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대상이며 두 부문 모두 개인 혹은 2인 이내 팀으로 참가 가능하다.

오는 7월 1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입상자에겐 문화체육관광부상·전당장상과 함께 총 1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은 채널 ACC·미디어 월·누리소통망(SNS) 등 ACC의 매체에 홍보 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참여 희망자는 ACC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응모작과 함께 전자우편(oohi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5회째 운영하는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은 지난해에는 10편의 영상 콘텐츠(UCC)를 선정해 유튜브, 도서 등에 활용했다. 문의 062-601-4266. /박성천 기자 skypark@

문화다양성 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5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했다.

광주문화재단이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 ‘나답게 그리고 너답게’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6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관공서 모니터 및 광주시청 뒤 전광판 등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주제로 한 30초 영상을 한국어와 영어 두 버전으로 송출한다. 해당 영상은 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에는 ‘인권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교육캠프 ‘우리누리(URI-N-URI) 캠프-우리랑 아리랑’을 진행한다. 네팔, 인도, 고려인, 지역민 등 소수문화 주체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게 참여형 강의로 운영된다. 문의 062-670-744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손원평 장편 ‘아몬드’ 100만부 돌파…특별판 출간

손원평(43) 작가의 장편 소설 ‘아몬드’가 출간 5년 만에 국내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다.

출판사 창비는 2017년 출간돼 꾸준히 사랑받은 ‘아몬드’ 100만 부 돌파를 기념해 특별판을 출간했다. 특별판에는 ‘다시 쓰는 작가의 말’이 수록됐으며 새로운 표지가 입혀졌다.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다. 인물들이 타인과 관계 맺고 슬픔에 공감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탁월하게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출간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20여 개국에 번역 수출됐으며 국내외에서 뮤지컬과 연극으로도 재탄생 됐다. 2020년에는 아시아권 최초로 일본 서점대상의 번역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영화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기도 한 손 작가는 첫 장편 ‘아몬드’를 비롯해 장편 ‘서른의 반격’과 ‘프리즘’, 소설집 ‘타인의 집’ 등을 펴냈다. ‘서른의 반격’은 올해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제46기 서점학교’ 수강생 6월 3일까지 모집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가 ‘2022년 제46기 서점학교’ 수강생을 오는 6월 3일까지 모집한다.

제46기 서점학교는 오는 6월 8일 수요일 1회차 교육이 시작되며 4주간 매주 수요일 회차당 2~3강의로 총 8강 강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교육은 ‘서점의 모든 것 A to Z’(손재완 前 영풍문고 대표이사), ‘서점 관련 정책 및 창업 트렌드’(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 ‘서점 창업 사례-더이상 미룰 수 없었던 서점 창업기’(홍진일 죄책감 대표), ‘서점 홍보마케팅과 온라인스토어’(정현주 서점리스본 대표), ‘서점 경영 세무와 도서납품’(이철재 책인감 대표), ‘서점 폐점 사례-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송은정 작가) 등이다.

교육 신청은 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kfoba5@hanmail.net) 또는 팩스(02-927-1436)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927-143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